

# 동 슬라브 민족, 몽골민족 및 한국민족의 전통 혼례복식의 비교연구\*

최수빈 · 조우현

인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강사 · 인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 **A Comparative Study of Wedding Costume Among the Eastern Slavs, Mongolians & Koreans : Focus on 19c - early 20c**

Su-Bin Choi · Woo-Hyun Cho

Part-time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Inha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Inha University

(2001. 10. 31 투고)

### ABSTRACT

The Eastern Slavic, the mongolian and the Korean wedding ceremony proceed through those three stages: pre-wedding, wedding, and after-wedding. (In the pre-wedding stage, the marriage is arranged when the parents make a decision on a matchmaking proposal. In the main wedding, the bridegroom visits the bride, and the bride walks through the many different procedures, which represent the life and the responsibilities of married women.) Especially, the wedding ceremony is finished and culminated by making hairstyle and wearing of headgear for married woman to the bride. The wedding costume of the Eastern Slav, the Mongolian, and the Korean has been developed with their different characters of styling. The traditional costumes of the each native are worn with the addition of a splendid decorative expression. The Eastern Slavic bride wears Lubaha and Sarapan or a skirt and bridegroom's wedding costume consist with Lubaha and Shitany(trousers). The Mongolian bride wears Deel and Ozh(Ooj) the vest and bridegroom wears Deel and Hantaaz. The Eastern slavic, the mongolian and the Korean bride wears various and gorgeous headgears which have reflected cultural values: their traditional views of a wedding ceremony, expected change of social roles for married people. The wedding ceremony of these 3 natives had been performed by the symbolic meaning of the union of the bride to the bridegroom's family.

Key words: wedding costume(혼례복식), wedding ceremony(혼례), Eastern Slav(동 슬라브 민족), Mongolian(몽골민족), Korean(한국민족).

\*이 논문은 2000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99-DO79)  
The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KRF-99-DO79)

## I. 서론

동 슬라브 민족, 몽골 민족 그리고 한국민족은 유라시아 대륙을 배경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통해 매우 다양하고 독특한 혼례문화를 발달시켜왔다. 스키타이 복식문화권이며 동시에 징기스칸의 유라시아 정복과 지배로 이루어진 상호영향으로 인해, 동 슬라브 민족과 몽골 민족 및 한국민족의 수발양식과 관모의 착용관습에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듯이<sup>1)2)</sup> 위 세 민족의 전통혼례절차와 전통혼례복식에서도 유라시아 민족간의 문화 접변으로 인한 상호관계가 고찰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민족과 유라시아 민족간의 전통혼례절차와 신랑과 신부의 혼례복식을 고찰하고 상호간의 비교를 통하여 일반성과 특수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 문화인류학의 근접비교방식을 도입하여 동 슬라브 민족(러시아, 우크라이나, 백러시아민족)과 몽골 및 한국민족의 19세기에서 20세기의 민속학과 복식학 관련 문헌과 박물관의 사료를 중심으로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전통혼례절차에 따른 혼례복식의 고찰은 유라시아에 거주하는 여러 민족들 사이에 형성된 다양한 혼속과 혼인에 관한 전통적 가치관을 규명하여 국제 교류가 활발한 글로벌 시대에 타민족의 정신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추구하기 위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본 혼례복식의 연구는 21세기 혼례복식을 재조명하고, 통과외례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혼례복식의 디자인 개발의 자료를 지원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민족간의 전통혼례관을 통한 전통적 가치체계의 바른 이해를 도모하리라 본다.

## II. 전통 혼례

### 1. 동 슬라브 민족의 전통 혼례

동 슬라브 민족의 전통혼례(스바지바(svadiba, с вадьба))는 6-7세기에 형성되었다<sup>3)</sup>. 결혼의식의 형

성은 다처제에서 일부일처제로의 변환을 뜻하기도 한다. 드네프르강 유역에 살던 고대 슬라브인인 '폴랴네(polyane, поляне)'부족에서는 밤에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다음날 아침에 자신의 집으로 신부를 데려오는 형식의 결혼이 성행하였다. 이것은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나, 몇몇 부족은 약탈혼 풍습이 있었다<sup>4)5)</sup>.

기독교가 수용된 10세기말에서 11세기에는 기독교적 결혼의례가 도입되어 전통혼례의 한 부분으로 정착되었으며, 17세기에는 기독교적 결혼식이 확고히 자리 잡으며, 이교도적인 결혼 풍습이 점차 쇠퇴하였다. 17세기 후반 공식문서에는 서민들의 이교도적인 전통 혼례의식들을 '마귀적 행위'등으로 표현하였다<sup>6)</sup>.

동 슬라브 민족의 전통혼례의식은 비잔틴의 정교회적 결혼예식과 샤마니즘과 토태미즘의 풍습에 기초한 혼속으로 나뉘어진다. 교회의 권위는 혼례관습을 형성하였다. 증매는 약혼을 뜻하는데 신랑이 약혼을 어겼을 시 교회에 일정한 배상을 하여야 하였다.<sup>7)</sup> 당시 교회에서는 근친간의 결혼, 이교도와 의 결혼이나 사회적 신분 차이가 크게 나는 결혼 및 다중 혼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14-15세기에 와서는 첫 번째 두 번째 결혼에서 아이가 없을 때 세 번째 결혼을 인정하고 세 번째 네 번째 결혼에서 얻은 아이를 상속자로 인정하여 주었다.

고대 동 슬라브 민족은 신부가 가정살림에 필요한 식기나 침구를 혼수로 준비하였으나 점차 신부 소유의 지참금이나 가축, 토지 등을 혼수로 마련하였다. 신부가 죽을 경우 혼수는 자식에게 상속되며 자식이 없을 경우 친아버지 집으로 상속되었다<sup>8)</sup>.

동 슬라브 민족의 결혼의 의미는 가정경제의 형성에 있다. 신랑감과 신부감은 근면함과 인내력, 가정의 평판에 의해서 선택되었다. 미혼의 남녀는 땅을 소유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에서 어떤 권리도 부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혼의 풍습이 생겼다.<sup>9)</sup> 18세기부터 19세기초의 결혼적령기는 여자 16세, 남자 18세였다. 19세기에서는 농사에 필요한 노동능력이 갖춰지는 나이를 고려하여 조혼의 풍습은 많이 사라졌다.

19-20세기 동 슬라브 민족의 전통혼례 절차는 크

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婚禮前' 단계로 이것은 중매부터 결혼식전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며 둘째 단계인 '婚禮式'날은 교회결혼 서약일 아침부터 결혼 첫날밤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셋째 단계인 '婚禮後' 단계는 혼인 후의 모든 기간을 통틀어 지칭한다.

'婚禮前' 단계에서는 신붓감을 찾아가 예비 신부의 승낙하에 신부의 됨됨이를 살피는 것으로 시작된다. 신붓감을 살피본 후 신붓감이 결정되면 중매자를 세워 신부 측에 정식으로 혼담을 전한다. 다음 단계에서 신부 측은 신랑감을 살피고 신랑감의 생활 능력과 가정을 살핀다. 신랑과 신부의 부모들이 결혼을 결정하면 손을 마주 치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을 보가말리야(bogomolie, богомолье), 오브라조후까(obrajovka, бразовка)라 한다. 이렇게 중매가 성사되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 친근해 지도록 혼인 전날 신부의 집에서 친구를 초대하여 잔치를 하는 약혼식을 치른다. 이를 '제비쉬닉(devishnik, девишник, девичник)'이라고 하며, 20세기 초 몇몇 지역에서는 신랑의 집에서 신랑의 친구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하는 말취쉬닉(maltchishnik, мальчишник)을 하였다. 이와 같이 '婚禮前' 단계의 의례는 신붓감 결정 시기, 중매기, 중매성사기, 약혼으로 이어지며 거행된다.



<그림 1> 혼인 행렬  
(Макашна Т.С., Свадебный обряд)

동 슬라브 민족 전통 혼례의 두 번째 시기인 '婚禮式'도 다음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결혼식날 아침에 신부는 전통 頭髮樣式인 변발을<sup>10)11)</sup> 풀고 신랑에게 변발을 파는 의례를 마친 후, 교회에서 혼례의 축복을 받는 결혼식을 거행한다. 다음 단계는 혼수를 가지고 신랑이나 신부의 집으로 가서 頭飾을 바꾸어 쓰는 의례를 하고 마지막으로 혼인 첫날밤을 보낸다.

'婚禮後' 단계에는 젊은 부부를 축하하는 잔치를 한다. 동 슬라브 민족의 전통혼례의식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른 의식들이 증감이 되었으나 대동소이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2)</sup>(그림 1).

## 2. 몽골 민족의 전통 혼례

몽골의 고대 결혼 형태는 계급별로 구별되었는데 높은 계급 자들은 약탈혼으로 결혼을 하였고 다른 지방에까지 가서 신부를 맞이하였다. 할하(Khalkha, Халха)족은 신부를 아래의 3가지의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첫째로 신부와 신랑의 나이 띠, 기질을 맞추었다. 신부는 신랑보다 4~5세 이상 많으면 적당하다고 여겼으며 13살의 나이가 차이가나면 맞지 않는다고 했다. 둘째, 여자의 바느질 솜씨가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 약혼할 때 하는 말에 '가족으로 옷을 만드는 이는 당신 집에 있다. 보석을 꿰어 연결하는 자는 당신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 딸의 바느질 솜씨가 좋다'는 뜻을 의미하였다. 셋째로 할하(Khalkha, Халха)족은 생기가 돌는 얼굴, 두터운 입술, 크고 검은 눈, 정렬된 하얀 치아, 눈썹이 두꺼우며, 긴 머리와 넓은 이마, 넓은 얼굴, 가는 허리, 긴 다리, 행복한 미소와 온화한 얼굴을 가진 이를 미인으로 여겨 이런 기준에 적합한 여자를 선택하여 약탈하였다.

몽골의 할하(Khalkha, Халха)족은 쉽게 이혼할 수 없게 이혼 법을 만들어 제재하였으며, 이혼 시에는 계층의 차별 없이 법에 준하여 결정하였다. 이혼한 여성은 둘로 나눈 머리를 다시 하나로 묶고, 친정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혼한 여자를 사람들이 싫어하였다. 1709년에 만들어진 '할라흐 조름' 법전에 제정된 귀족에 관한 파혼의 배상금과 평민의 결혼

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몽골 민족은 결혼의 약속을 귀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몽골에는 할하(Khalkha, халха), 부랴트(Buryat, бурият), 드르붓(Dörböt, Дөрвөд), 토르구트(Törgüt, торгут), 바르가(Barga, барга), 다리강가(Dariganga, дариганга), 우쭈친(Uzumchin, узумчин), 바이트(Bayit, байт), 우랑하이(Uryankhait, урянхай), 호톤(Khoton, хотон), 밍가트(Mingat, мингат), 자흐친(Sakhchin, захчин), 다르하트(Darkhat, дархат), 오료트(Olöt, олет), 카자흐(카자크)(kazakh, казах)<sup>14)</sup>등과 같은 부족이 살고 있다. 몽골 인구와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한 할하(Khalkha, Халха)와 기타 부족들이 19세기 - 20세기초까지는 각 부족의 고유성을 간직하고 있으나 모든 부족이 동일 민족계통이며 수 백년 동안 한 나라, 같은 지역에서 살아왔고, 같은 산업구조와 종교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미 언어 및 문화에 있어서 많이 통일화되어 있었다<sup>15)</sup>. 1921년, 몽골은 사회주의공화국으로 새로운 사회주의형태의 단일민족사회가 구성되었고 몽골의 사회주의적 민족결합 과정과 민족문화 융합, 통일과정에서 전통적 혼인 풍습 통일이 되어 갔다.

몽골 민족의 전통혼례 풍습은 전반적으로 '婚禮前', '婚禮式', '婚禮後' 등 3단계로 나뉘어진다. '婚禮前' 단계에는 신부를 선택하여 청혼하고, 두 가정이 사돈관계를 맺고, 사돈간의 혈통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드르붓(Dörvöd, Дөрвөд) 바이트(Baid, байд), 어얼뎃(ööld, өөлд), 자흐친(Sakhchin, захчин), 우쭈친(Uzumchin, узумчин), 부랴트(Buryat, бурият) 등 전체몽골민족들의 결혼 및 신부를 선택할 때 양가부모들이 결정하였다. 중매가 이루어지면 먼저, 신랑 측에서 신부집에 가서 청혼을 하고, 신부의 부모로부터 결혼승낙을 받았다. 이때 주로 청혼할 때 하는 정해진 말인 '암 선스거호'(am songoh, Ам сонгох)와 긴 흰 수건을 선물을 하는 '하다크 테비호'(hadag tavih, хадаг тавих)의례를 하였다.<sup>16)</sup> <그림 2> 드르붓(Dörböt, Дөрвөд), 바이트(Bayit, байт), 자흐친(Sakhchin, захчин), 어얼뎃(ööld, өөлд) 등 부족들은 양가의 사돈 관계의 부동을 증명하는 예물형식의 혼수품을 교환하는 '베렉 테비호'(Beleg tavih, Бэлэг тавих)의례를 가졌다.



<그림 2> 하닥 전달  
(몽골 유목문화, 경기도 박물관)

이러한 혼수품을 드르붓(Dörböt, Дөрвөд), 바이트(Bayit, байт)부족에서는 '시이'(Sii, Сий), 우쭈친(Uzumchin, узумчин), 부랴트(Buryat, бурият)는 '말 헤렐체흐'(Mal heletsheh, Мал хэлэлцэх)라 하였다. 서민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생활력과 관련해서 혼수품과 지참금이 많지 않았다. 지참금을 지참하는 풍속이 발전하지 않았고, 주로 신부 측에서 신랑 측의 재산에 맞추어 약간의 가축, 또한 신부예복에 들어갈 옷감, 새집의 가구의 일부분을 부탁해서 준비하였다. 혼수품은 양가가 상호간 구두로 결정하였다. 모든 부족들은 혼수품을 넘겨준 다음에 결혼식 준비를 시작하여 신랑 측이 신방(새로운게르'-Ger, гэр)과 신랑예복을 준비하고, 신부 측은 신부의 물건 즉, 가구들이나 살림, 부인옷, 여성장식품 등을 만들었는데 결혼식까지 1년-2년 동안 지속되었다.

전통결혼 풍습의 '結婚式' 단계는 신부를 데리고 오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신부집에서 행하는 예식, 신부를 데리고 신부집을 떠나 신랑집으로 가는 도중에서 행하는 예식, 마지막으로 신랑집에 도착했을 때 행하는 예식 등 3가지 절차로 나누어진다.

신랑 측에서 온 주례자, 함을 진 사람, 술을 따라주는 사람, 신랑 어머니, 형수와 매형 기타 사람들 등으로 구성된 무리들이 신부집에 도착할 때, 신부는 다른 집에 숨어 있어야 하는 의례, 양가가 같이

신부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잔치하는 동안 신랑 측이 신랑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두르고 수건을 앞에 매어주는 의례, 신랑을 대접할 육류를 신부 측에 예물로 드리고 신부의 물건을 신랑 측에 넘겨주는 의례가 포함된다.

신부 측에서 행하는 마지막 의례는 샤르 나란드 머르글릿(Shar narand mörguulekh, Шар наранд мөргүүлэх: 황금의 태양에 절을 올리다)이라는 독특한 예절이 드르뵓(Dörvöd, Дөрвөд), 바이트(Bayit, байт), 우쭈친(Uzumchin, узумчин) 등 서 몽골인들의 결혼 풍습에 전과되어 있다. 생명을 같이하는 의례로서 신랑과 신부의 땀기를 풀고, 머리를 같이 묶어주고, 다시 땀기를 엮어서, 태양 앞에 3번 절을 한 후 바이트(Bayit, байт)부족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모자를 양가의 베르기트(Berged, бэргэд대표자)들이 겹안으로 던졌다가 다시 가지고 오는 풍습인 말가이 오르랄달라후(malgai oraldoolakh, малгай уралдуулах)를 행했다. 드르뵓(Dörböt, Дөрвөд)부족에서는 위의 풍습과는 다르게 신랑과 신부의 모자를 바꾸어 쓰게 하는 풍습이 있다. 대부분의 부족들은 신랑집에서 신부를 화로와 우상에게 절을 올리게 할 때, 이 풍속을 행하였다.

신부 측에서 신랑 측으로 가는 도중에 행하는 풍습에는 양가간의 여러 경기를 하는 독특한 풍습이 있다.

‘結婚式’의 마지막 단계는 신랑 측에서 하는 의례들이다. 신부와 모든 일행이 신랑 측에 도착하면, 허트 게르(Khot ger, хот гэр)를 태양이 뜨는 방향으로 3번 돌고, 다음에 말에서 내려 신부의 물건들을 신방에 차려놓고 신부를 양털 카펫트 위에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접하였다. 신방의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여 시댁에 절을 올리게 하고 차를 끓이게 한다. 시부모는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음식으로 대접하며 시댁과 신방에서 동시에 잔치를 베풀었다. 신부의 어머니에게는 가축과 옷감을 예물로 드렸다. 부랴트(Buryat, бурият)에서는 위의 의례를 집밖의 원안에서 행하였다.

‘婚禮後’단계는 結婚式후 3일째 되는 날에 베푸는 잔치와 신부의 친정방문을 가리킨다. 結婚式후 3일째 되는 날 열리는 잔치에는 신부의 아버지가 참석

하여 침대 앞에 드리워진 커튼을 걷어내는 의례를 거행하였다. 이는 양가 친족이 혼인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상징적 행위이다<sup>17)</sup>. 신부가 친정을 방문할 때에는 신랑집에서 반드시 어른 남자와 여자가 함께 따라가야 하며, 친정부모와 친족들에게 드릴 우유, 소주, 삶은 양고기 등과 같은 예물을 준비하였다. 신부가 시댁으로 돌아갈 때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물은 주로 가축이었다. 이런 풍속들은 우쭈친(Uzumchin, узумчин) 이외의 부족들간에는 서로 비슷하게 행하여졌다. 드르뵓(Dörböt, Дөрвөд), 바이트(Bayit, байт) 등 서 몽골 부족들에서는 신부가 결혼 후 1-2년 이상 지난 후에야 친정을 방문할 수 있었으며, 부랴트(Buryat, бурият)는 비교적 짧은 기간인 몇 달 후에 신부를 친정 집에 방문케 했다. 그러나 우쭈친(Uzumchin, узумчин) 부족은 결혼 후 3일 후에 친정부친과 인도자등 기타 무리들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부집으로 가고, 9일을 지낸 후에 다시 신랑집으로 데리고 왔다.

전통 혼례의 형태는 지방에 따라 의례종류 절차의 증감이 있으나, 모든 부족이 가부장 제도의 의식이 강하여 신랑의 집에서 행하는 의례의 비중이 컸으며 몽골의 모든 지방에 약탈혼이 성행하였다.

### 3. 한국 민족의 전통 혼례

우리 나라 전통사회에서의 혼례란 젊은 남녀가 하나가 되어 위로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아래로는 자손을 후세에 존속시켜 조상의 대를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 치르는 통과 의례이다. 혼인은 두 개인의 결합이고 이로 해서 생기는 두 가족의 결합이기도 하다<sup>18)</sup>.

고대 사회에서는 同姓婚, 同族婚도 꺼리지 않았으나 유교의 영향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고려말에는 외가 4촌, 이성재종자매와의 혼인이 금지되고, 조선조에 와서 동성동본의 금혼은 물론 모계 및 처족과의 혼인이 법으로 금지되었으며 배우자의 계급적 제한도 엄격해졌다. 고려시대이전 신라와 고구려에서도 우리 나라의 혼례는 ‘禮記’에 적용되어 고려조까지 이에 따라 시행되었고 조선조에 와서 ‘朱子家禮’가 적용되어 혼인제도가 엄격히 시행되었

다<sup>19)</sup>.

조선의 혼인에법의 특징은 첫째, 반드시 중매결혼을 하였으며 중매자나 주혼자가 없으면 自媒和姦罪로 治罪하였다. 둘째, 一夫多妻婚의 다중혼이었으며 셋째로 族內結婚을 금하여 세종대부터는 同姓인자의 혼인을 금하는 동시에 타 신분계급과는 通婚하지 않았다. 넷째로 주변국가에 대한 최유책으로 族外結婚政策을 사용하였고 다섯째로 원나라와 명나라에 대한 貢女에 의해서 早婚이 성행하였다. 가시내란 단어도 고려대 원나라의 貢女를 피하기 위하여 처녀들이 남장을 하고 다녀 가짜 사내란 의미에서 기원한 말이다. 早婚의 풍속으로 남자 15세, 여자 14세로 국가가 혼인연령을 정하였고 조선조 역대 왕들은 9~14세에 조혼하였다. 多孫을 하기 위하여서도 조혼이 성행하였다. 여섯째로 재혼이 금하여지고 재혼한 자손에게는 土路가 제한되었다.

조선시대의 혼례의 절차는 禮記의 혼의례 나타난 六禮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가장 보편화된 혼례는 四禮便覽에 의한 의혼, 납채(연길), 납폐, 친영으로 이루어졌다. 近代六禮는 의혼, 납채, 연길, 납폐, 친영과 현구고례(폐백)로 이루어졌다.

위의 두 민족과 마찬가지로 한국 민족의 혼례도 의례의 준비과정, 결합과정, 흡수과정으로 나뉘어진다<sup>20)</sup>. 각 과정을 혼례절차에 따라 '婚禮前' 단계, '婚禮式' 단계, '婚禮後' 단계로 나누어보면, 성격상의 의례의 준비과정인 '婚禮前' 단계에는 의혼, 납채, 납폐가 속하며, 관행에 의하면 의혼, 납채, 연길이 포함된다. 관행에서는 납폐를 결합과정에 속한다. 의혼이란 중매의 절차를 통하여 집안간에 혼인의 의사를 알아보는 단계이다. 남자는 17세에서 20세, 여자는 14에서 20세에 의혼을 한다. 정혼이 되면 주혼이 납채서를 써서 신부집에 보내는데 납채(納采)는 四柱를 말한다. 납채서를 받은 신부 측은 혼례식 치를 날을 정하는 연길 즉 오행의 이치에 따라 택일하여 신랑 측에 보낸다. 연길을 한 후에 함에 납폐서와 폐백을 넣어 신부집으로 보내는 납폐를 하였다. 납폐는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대하여 혼인을 허락해준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보내는 예물로 봉채(封采)=봉치 또는 함이라고도 한다. 이때 예물은 신부용 혼수와 禮狀을 넣은 혼수 함을 결혼식 전날 보낸

다. 이 절차가 모두 끝나면 친영, 즉 혼례식을 거행한다.

'婚禮式'의 단계는 신랑 신부의 결합과정을 상징한다. 친영은 초례, 정안례, 우귀, 교배례, 합근례에 이어지는 결합과정을 禮로 치르고 개인적 결합과정인 조야를 치른다.

四禮便覽에 의하면, 혼례일 새벽에 신랑집에서는 방에다 혼례상을 차리고 초저녁에 신랑이 사모·단령·품대·혹화로 성복을 하고, 주혼이 신랑을 데리고 사당에 가서 고한다. 초례를 올리고 집안자(기력아비)를 포함한 신랑의 행렬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와 신랑집에 혼례를 치루고 신방을 꾸민다<sup>21)</sup>.

그러나 근래의 실제 절차에서는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혼례를 치르고 신부를 맞아온다. 친영은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의 순으로 거행된다.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하면 함진아버가 납폐를 한다. 전안례가 끝나면 신랑은 혼례상으로 인도되어 동쪽에 서고 신부는 수모의 부축으로 나와서 마주선다. 신부가 재배를 하면 신랑이 일 배로 답하였다. 이를 교배례라한다<그림 3>. 교배례는 두 사람은 상대방에게 백년해로를 서약하는 것이다. 교배례가 끝나면 합근례를 거행하는데 지방에 따라 교배례와 합근례를 세 번 반복하기도 한다.



<그림 3> 교배례(친영)  
(Korea cultural heritage)

'婚禮後' 단계는 흡수과정인데 예서의 재행과 관행의 우귀 다음에 행해지는 절차를 말한다. 혼례의 마지막단계로 의례가 가지는 의미를 벗어나 일상생

활로 통합되는 단계인 것이다. 예서에서는 신랑이 신부 가족에 대해서 치르는 절차로 되어 있으나, 관행으로는 신부가 신랑집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말한다. 대례를 마치고 신부가 시댁으로 들어가는 일을 우귀 또는 신행이라 하고 신부가 시집에서 처음으로 시부모에게 인사를 올리는 예를 현구고례, 폐백이라고 한다.

### III. 전통 혼례복

#### 1. 동 슬라브 민족의 전통 혼례복

동 슬라브 민족의 혼례복은 평상복과 비교하여 착용되는 의복의 종류에는 큰 변화가 없다. 신랑은 루바하(rubaha, рубаха)와 바지(blyuki, брюки)를 입었고 루바하 위에 허리띠를 하였다. 신부는 루바하(rubaha, рубаха)와 사라판(sarafan, сарафан), 루바하(rubaha, рубаха)와 치마(yubka, юбка)의 민속복식을 입었다. 동 슬라브 민족의 전통혼례복식에서 가장 큰 특징은 결혼으로 인하여 신부의 수발 형태와 관모가 바뀌는 것이다.

동 슬라브 여성의 수발양식과 관모는 미혼녀와 기혼녀로 구분하여 착용되었다. 미혼여성은 두발을 자유롭게 보일 수 있는 반면 기혼여성은 반드시 관모를 착용하여 두발을 가렸다. 동 슬라브 민족은 두발이 종교적,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혼례식 중에 신부의 머리형태는 여러 번 바뀌었다. 신부의 변발을 혼례전날 목욕 전후에 풀었고 변발을 장식하였던 까스니끼(kasniki, каснікі)를 어머니나 가까운 여자친구에게 주었다<sup>22)</sup>. 일반적으로 신부의 변발을 중매자나 남동생이 풀었고 부모가 먼저 신부의 변발을 풀기 시작하고 다음으로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며 변발을 풀었다. 그리고 아마, 면, 플라톡(platok, платок)<sup>23)</sup>이나 돈등을 신부에게 선물을 하였는데 이 의식을 '변발 위에 놓기(положить на косу)'라고 한다. 이 '변발 위에 놓기(положить на косу)'는 신부가 원하는 것을 결혼 전에 선물을 하는 풍습으로써 代母(정교회의 풍습)는 동 슬라브 민족의 전통 서츠인 '루바하(rubaha, рубаха)

의 윗부분 '루까바(rukaba, рукава)'를 선물하였고 代父는 聖像과 빵을 선물하였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변발풀기 풍습은 먼저 친구들이 신부의 머리를 빗겨주고 기름과 꿀을 바르고 신랑이 준 돈과 마늘을 넣고 땅았다. 마늘은 모든 전염병을 없앤다고 여겨졌고 간혹 모든 害로부터 보호하는 의미에서 박하풀이나 수레국화를 넣고 땅기도 하였다.

신부의 머리카락 자르기 풍습은 원시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에 대한 굴복과 순종의 표시에서 기인하였다<sup>24)</sup>. 이는 옛 혼례의식에서 자주 보이며 신랑은 신부의 변발을 자른 다음 신부의 어머니는 잘린 변발을 건네주며 '변발을 머리와 같이(with head) 가지세요. 신부의 주인이 되시고 신부는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Возьми косу вместе с головой, будь её господином, а она будет твоей рабой)'라고 하였다<sup>25)</sup>.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동 슬라브 민족의 독특한 형태의 신부를 신랑에게 건네주는 증서와 같다. 머리를 올리고 기혼녀의 관모를 착용하는 것은 남편의 권위를 확고히 하고 남편의 집안 사람이 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동 슬라브 전역에 변발을 파는 풍속이 널리 행해지는데 변발을 자르던 혼례의식이 상징적으로 남은 형태이다.

19세기 중엽까지도 백러시아에서는 신랑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것을 불에 태우는 풍습이 있었다. 부모는 이마, 뒤통수, 귀 근처의 머리카락을 십자가 모양으로 칼로 자른 후 불에 태웠다<sup>26)</sup>. 동 슬라브 민속학자들은 백러시아에서 신랑의 머리를 깎는 풍습의 기원을 성인 남자가 되는 것의 표시라고 생각하였다<sup>27)</sup>. 신랑이 머리를 깎을 때 부르는 한 민속 노래의 가사를 보면 'Подстригайся, Янечка, з робяц кага стану, да у мужскую славу'이라고 하여 '머리를 깎는 것은 남자의 영광'이라고 노래하였다. 민속학자인 니콜스키는 이 노래를 부르며 신랑의 머리 깎는 풍습은 옛부터 내려오는 남자의 성년식의 풍습이 혼례의식에 첨가되었다고 보았다<sup>28)</sup>.

러시아의 기본적인 혼례 관모인 까루나(koruna, коруна)는 19세기까지 착용되었다. 혼인 관모는 진주와 비단을 사용하여 혼수로 준비되고 딸에게 대물림되기도 하였다(그림 4-5). 백러시아에서는 조

화로 만든 베녹(venok, венок)을, 우크라이나 지방에선 생화로 장식한 베녹(venok, венок)을 착용하였으며 베녹(venok, венок)을 만들기 위해 꽃을 따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그림 6-7).



<그림 4> 까루나-коруна  
(Мерцалова М.Н., Поэзия  
народного костюма)



<그림 5> 까루나  
-коруна (Мерцалова  
М.Н., Поэзия  
народного костюма)



<그림 6> 백러시아  
венок-베녹 (Романюк М.Ф.,  
Беларускае народнае  
адзенне)



<그림 7> 우크라이  
венок-베녹

신부의 얼굴과 머리에서 발끝까지 빠크리발라(pokribalo, покрывало-덮개라는 뜻)로 덮였는데<sup>29)</sup> 교회에서 모든 손님이 모인 가운데 예식 중에만 신부의 빠크리발라(pokribalo, покрывало)를 벗겼다. 신부의 쓰개는 각 지방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발달하여 왔다. 이 쓰개를 벗기는 것은 신부가 신랑의 집안에 귀속되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쓰개는 신부를 신성한 상석에 앉히고 신랑의 어머니가 쓰개를 벗겨 께취(벽난로)에 던졌다.

관모는 신랑은 물론 들러리들에게도 중요한 혼인 복식의 하나로 신랑은 혼례식 전체 절차에서 관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있다. 신랑은 계절에 무관하게 털모자를 착용하였으며 이는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부적과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혼인 행렬도 관모를 벗지 않았다.

동 슬라브 혼례에서 중요한 행사가 신부가 기혼녀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수발양식과 관모를 바꾸는 것이다(그림 8). 지방마다 특색 있는 기혼녀의 관모를 썼었는데 러시아에서는 까꼬쉬닉(kokoshnik, кокошник), 뿔이 달린 키취까(ktchka, кичка), 빠보이닉(povoinik, повойник), 스보르닉(sbornik, сборник) 등을 썼으며, 우크라이나에서는 오취빠(okchipok, очіпок), 나미트까(namitka, намітка), 란투흐(rantux, рантух), 세르빠노크(serpanok, серпанок)을 쓰고, 백러시아에서는 철페츠(tchepetsh, чепец), 나미트까(namitka, наметка)를 착용하였다. 동 슬라브 민족은 기혼녀가 머리를 보이면 곡물의 수확이 없고 가축이 죽는 불운을 가지고 온다고 믿었고 머리카락을 보이는 것을 수치로 여겼다<sup>30)</sup>. 민속학자 가겐토른(Gagen-torn, Гаген-торн)은 신부가 자신의 집을 떠나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가는데 자신의 머리카락의 마술적 힘이 친정에서 시댁으로 옮겨져 신랑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머리를 가리고 관모를 썼다고 하였다<sup>31)</sup>.



<그림 8> 신부에게 부인용 관모를 씌우는 의식. 왼쪽에 중매자가 들고 있는 접시는 관모를 놓았던 것임 - 예카테리노 슬라브스카야현 (Маслова Г.С., Народная одежда в восточнославянских традиционных обычаях и обрядах XIX-началаXX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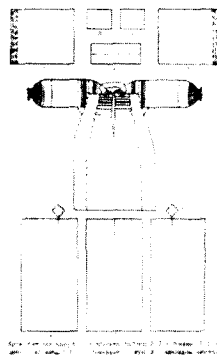




<그림 9> 나메트카  
наметка (М.Ф.  
Раманюк, Беларускае  
народнае Адзенне)

동 슬라브 민족의 혼례에서 관모를 씌울 때 신부가 지향하는 의례가 있었는데 이는 19-20세기에는 상징적 의미만 남게 되었으나 이 풍습은 대가족의 남편에게 시집가서 권리는 없고 많은 의무만을 지어야하는 젊은 부인의 괴로움을 표현하였다고 한다. 기혼녀의 쓰개인 나메트카(nametka, наметка)를 씌울 때 신부의 친구들은 이것을 방해하기도 하였다<그림 9>. 동 슬라브 민족의 기혼녀의 관모는 남편과 그의 가족에게 복종함을 의미하였다.

동 슬라브 민족의 신랑 신부의 기본의복인 루바하(rubaha, рубаха)는 동 슬라브 민족의 대표적인 전통의상으로 20세기 초 까지 지방에선 외출복과 실내복으로 루바하(rubaha, рубаха) 한 장만을 입기도 하였다. 신랑의 혼인에복으로 루바하에 바지를 입고 반드시 허리띠를 띠었다. 동 슬라브 민족의 미혼남자들은 결혼 전 까지 부류까지 오는 긴 루바하(rubaha, рубаха)에 허리띠를 매고 다닌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루바하(rubaha, рубаха)를 파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파는 것이라고 믿어서 자신들이 착용하던 루바하(rubaha, рубаха)는 팔지 않기도 하였다<sup>32)</sup>.



<그림 10>  
루바하-рубаха (М.Ф.  
Раманюк)

혼례용 루바하(rubaha, рубаха)는 집에서 짠 흰색의 면으로 앞, 뒷길에 중간 가로 이음이 없이 한 장의 길 것으로 재단하였다. 혼례용의 긴 루바하(rubaha, рубаха)는 빨간색의 실로 장식하였고 마름모 모양의 줄무늬, 기하학적 무늬 등을 수놓았다. 무늬는 수평적으로 줄을 맞추어 배치하였으며 옷 가장자리, 옷깃과 소매에 장식하였다<그림 10>.



<그림 11>  
남성 혼례복  
(Мерцалова М.Н.,  
Поэзия народного  
костюма)

남성용 루바하(rubaha, рубаха)도 빨간색의 무늬가 소매끝 옷깃과 어깨와 솔기선에 마름모와 기하학모양으로 수놓았는데 이것은 빨간색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영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혼례용 루바하(rubaha, рубах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어려운 해산때나 병이 걸렸을 때 등 일생의 중요한 때마다 착용하였다. 신랑의 혼례용 루바하(rubaha, рубаха)는 날을 징하여 신부가 직접 만들었다<sup>33)</sup> 루바하(rubaha, рубаха)의 무늬의多少는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을 상징하기도 하였다<그림 11>.

우크라이나에서는 루바하를 사로취까(sorochka, сорочка)라 불렀다. 사로취까(sorochka, сорочка)는 그 형태와 장식이 다양하고 재단한 패턴의 모양 또한 다양하다. 장식도 다른 동 슬라브 민족의 루바하(rubaha, рубаха)보다 화려하고 다양한 무늬를 가지고 있으며 목부분에 연결되는 어깨선에 잔주름을 많이 잡아서 풍성한 어깨선을 만들었다. 사로취까(sorochka, сорочка)는 허리띠로 둘러서 입었다.

동슬라브 민족의 여성은 혼례복식으로 루바하와 함께 사라판(sarafan, сарафан)이나 치마를 입었다. 동 슬라브 민족의 사라판은 병어리 형, 앞이 절개된 형, 개더 주름 형, 리프(가슴판) 형으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백러시아에서는 치마나 리프(가슴판)이 달린 사라판(sarafan, сарафан)이 널리 착용되었다<그림 12-14>.

북부 러시아에서는 사라판(sarafan, сарафан)을 입었으며 남부 러시아에서는 요의인 치마나 빠노바(poniova, понёва)를 입었다. 사라판은 금사나 레이스와 비즈로 장식을 하였고 남부의 대표적인 복식인 빠노바(poniova, понёва)는 자수로 장식하였다. 동 슬라브의 다른 복식과 같이 빨간색의 천이나 장식을 많은 사용하였다<그림 15>.

러시아 남쪽 지방에서도 20세기 초 도시의 혼인



<그림 12> 19C 중엽  
혼례용 사라판  
(Мерцалова М.Н., Поэзия  
народного костюма)



<그림 13> 19C 말 혼례용  
공단 사라판 (Мерцалова  
М.Н., Поэзия народного  
костюма)



<그림 14> 19C 초  
혼례용 비단 사라판  
(Мерцалова М.Н., Поэзия  
народного костюма)



<그림 15> 빠노바 위에  
앞치마 착용  
(Одежа народов СССР)

드레스가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혼례식의 예복으로 드레스나 사라판(sarafan, сарафан)이 사용되었다. 혼인예식 후 신부는 빠노바(poniova, понёва)를 착용하거나 결혼 후 일년동안은 예복용 사라판(sarafan, сарафан)을 착용하였다.

## 2. 몽골 민족의 전통혼례복식

몽골 민족의 모든 종족은 고유하고 독특한 형태의 복식과 수발양식을 가지고 있으며<sup>34)</sup> 최근까지 전통복식 착용을 유지해왔다. 1940년대 혁명이전까지 할하(Khalkha, халха)족의 '날개'모양 수발양식이 남아있었다. 몽골 민족의 전통 혼례복식은 장식성이 뛰어난 민족성을 바탕으로 화려하게 발달한 수발양식과 관모로 대표될 수 있다. 몽골 민족은 변발이 발달된 민족이다. 13-14세기 몽골의 석인상의 연구<sup>35)</sup>를 통해서도 변발이 이미 13-14세기에도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혼녀와 미혼녀 모두 변발을 하였으나 혼례를 중심으로 변발의 수나 늘어뜨린 모양으로 기혼녀와 미혼녀가 구분되고 또한 성별과 나이가 구분되었다. 몽골 민족의 여성 傳統修髮樣式에는 화려하고 담대한 장식을 사용하였으며 금속관을 부조하여 장식구로 널리 사용하였고 화려한 장식의 변발을 넣는 주머니도 발달하였다.

몽골의 대표적인 修髮樣式은 할하(Khalkha, Халха)족의 툴고이(tolgoi polt, тогой боолт-뿔은 머리, эхнерус-부인의 수발양식)이다. 두 갈래로 나눈 머리에 풀을 발라서 판판하게 만들어 관자놀이 부분부터 어깨까지 늘어뜨리고 편으로 고정시켰다. 끝부분의 머리는 땅아 내리어 검은 주머니(쉬베르리그(shverlig, швэрлиг)쉬베르젤(shverger, швэргэл))에 넣었고 그 위에 은으로 만든 장식이나 여러 가지 보석으로 장식하였고 머리 위에 끝이 뾰족한 모자를 착용하였다. 이런 형태의 수발양식은 대부분의 몽골 족에서 혼례용 수발양식으로 행하였다<그림 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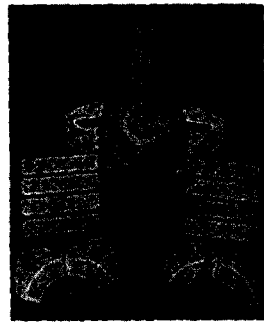
남자의 관모는 말가이(malgai, малгай)라 하는데 펠트로 만든 챙이 있는 모자이다. 현재 몽골의 남성은 머리를 밀거나 짧게 잘랐으나



<그림 16> 툴고이 뿔트  
(Chinggis Khan, Mongolia,  
'96 Korea Exhibition.)



<그림 17> 돌고이 벨트 (Chinggis Khan, Mongolia, '96 Korea Exhibition.)



<그림 18> 은장식 (Chinggis Khan, Mongolia, '96 Korea Exhibition.)



<그림 19> 신부를 천에 싸가지고 신랑집으로 향하는 모습 (몽골의 유목문화)

예전에는 머리의 반만 밀고 뒤쪽은 변발을 늘어뜨렸다.

몽골의 전통 혼례에서 신부의 머리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례였다. 오르더스(Ordos, op doc)의 결혼식에는 양가 내 분의 부모와 함께 머리를 만지는 두 분을 부모로 삼고, '여섯 분의 부모님'이라고 '존경'하였다. 신부의 머리를 만져 머리카락을 돌로 가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례로 부인이 된다는 뜻이다.

할하족(Khalkha, халха)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려 할 때에 신부의 어머니가 딸을 집에 초대해서 차와 술을 주고 덕담가가 덕담을 하고 끝나면 집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고 신부의 들러리들과 친구 여자들이 신부를 억지로 문밖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때 신부가 울어야 하는데 이것은 울고 온 머느리가 집을 떠나고 싶어하는 생각이 안 든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 때 신부의 단머리를 함께 내고 신랑의 단머리의 끝과 합쳐서 빗으며 몸이 합치는 것 의식을 한다<sup>37)</sup>. 신랑 쪽이 신부를 뺏는 것처럼 끌고 나가서 빨간색이나 녹색이나 흰색의 옷으로 덮고 밧을 태워 개르를 세 번 돌아서 떠난다<그림 19> 신부를 덮는 천의 색깔은 집친 길일에 따라 달라진다<sup>38)</sup>. 신랑의 집에 도착하면 신부를 굴 사이로 나가게 해서 소독하고, 집에 데리고 가서 머리를 돌로 갈라 빗어서 부인의 머리로 바꾼다. '마이항'이라고 하는 임시 천막에서 신부의 머리를 풀고 두 갈래로 따는 의식이 행했다<sup>39)</sup><그림 20>. 이렇게 머리 모양을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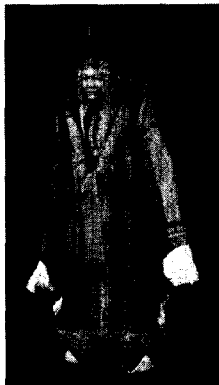
<그림 20> 원편의 파란 천막 '마이항' (몽골 유목문화)

꾸는 의례를 '아내가 된다'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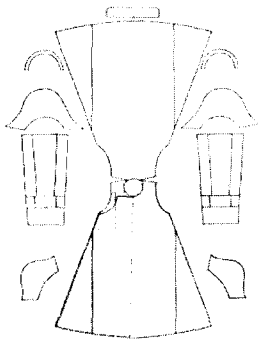
드르붓(Dörvöd, Дөрвөд), 바이트(Bayit, байт), 우춤친(Uzumchin, узумчин), 자흐친(Sakhchin, захчин), 어얼뫏(ööld, өөлд)등 서 몽골인들은 신부를 데리고 결혼식에 나가기 전에 생방을 같이하는 의미의 의례로서 신랑과 신부의 변발을 풀고, 서로를 같이 묶어주고 다시 변발을 땁는다. 또한 이 의례를 마칠 쭈, 바이트 부족의 결혼식에는 신랑과 신부의 모자를 양가의 대표자들이 쭈 안으로 던집니다. 그 뒤에서 다시 달려가 가지고 오는 풍습을 행했습니다. 드르붓(Dörvöd, Дөрвөд) 부족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모자를 바꾸어 쓰게 하는 의례들이 있다<sup>39)</sup>.

몽골의 전통 혼례복식은 전통복식의 성장으로 이

루어졌다. 할하(Khalkha, халха)의 전통복식의 기본은 테를레그(terleg, тэрлэг)라는 델(deel, deel)을 입고 그 위에 조끼(배자, оој, ууж)를 걸쳤다. 델은 긴소매에 모드라그(modraga, мудрага)라는 높이 솟은 어깨를 하였다<그림 21-22>. 소매부리는 갈대기 모양(노드라가-nodraga, нудрага)이다<sup>40)</sup>. 소매중간은 델의 천과는 다른 천을 사용하여 선 장식을 하였다. 이런 선 장식은 깃에도 사용되었다.



<그림 21> 할하의 혼례성장(기혼녀 성장)  
(Henny H.Hansen, Mongol Costumes)



<그림 22> 할하족의 델 전개도 (Mongol Costume)

배자(оој, ууж)는 짧은 조끼인 쉐취(tshedj, цедж)와 치마를 달고 뒷쪽이 허리띠 높이까지 절개된 오딘 호르모스(oodiin hormos, уудин хормос)를 착용하였다. 배자는 앞이 절개되어 몇 개의 단추로 여민다.

예전에 몽골의 기혼녀들은 허리띠를 띠지 않았다. 옛 몽골어에서 여자를 부스귀(busgui, бүсгүй)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허리띠가 없는'이란 뜻이며 남자를 부스테이(bustei, бүстэй) '허리띠가 있는'이란 뜻이다. 현대에는 모든 여성이 허리띠를 한다<sup>41)</sup>. 몽골에서는 허리띠와 관모로 민족을 구분은 한다.

기혼녀의 복식은 혼례를 치루면서 착용이 허용되었다. 수발양식과 의복은 서로 상호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머리를 한 줄로 땀게 되면 여성은 미혼녀의 복식을 입어야 한다. 현재 할하

(Khalkha, Халха)족의 기혼녀는 미혼녀의(남성)의 포를 입는다.

동 부랴트(Buriat, буриат)의 여성 복식은 셔츠인 삼사(samsa, самса)에 바지(umde, умдэ)를 입고 그 위에 포인 데겔(degel, дэгэл)을 입었다. 소매는 여러 구성으로 되어있는데 맨 윗 부분은 데겔(degel, дэгэл)과 같은 천으로 만들어졌으며, 어깨는 주름을 넣었다. 중간에는 밝은 색의 대비가 되는 색깔의 비단으로 선을 둘렀다. 이것을 볼롭쉬(bolobshi, булуубши)라 한다. 이 선의 윗 부분과 아랫부분을 밝은 색의 얇은 선으로 두른다. 높지 않은 스탠드칼라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포의 왼쪽 앞깃이 오른쪽에 누운 우입이다. 왼쪽의 깃을 엘류르 호르모이(elnor hormoi, элнур хормой), 오르다 호르모이(orda hormoi, урда хормой)이라 하고 오른쪽 깃을 도토르 호르모이(dotor hormoi, дотор хормой)라고 하였다. 포의 옆선을 하야자(hayasa, хаяза-다른 재질의 선)라 하였다. 부자인 부랴트의 기혼녀는 데겔을 중국 비단으로 만들었으며 그 위에 짧은 배자인 오취(оој, ууж)를 착용하였다<그림 2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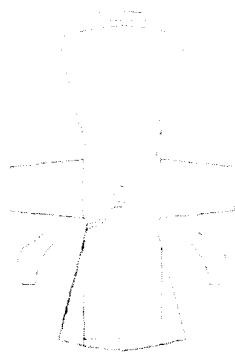
<그림 23> 부랴트의 델- (Mongol Costume)



<그림 24> 부랴트 부녀의 성장 (Mongol Costume)

서 부랴트인들은 치마가 달린 긴 배자인 세취드쉐(sejedshe, сээжэдшэ)를 착용하였다. 치마는 뒤쪽이 허리띠 높이 까지 절개되었다. 서부랴트의 세취드쉐(sejedshe, сээжэдшэ)는 칼막기의 첵덱(tsegdeg, цэгдэг)과 흡사하다. 이는 서부랴트인이 인종적으로 칼막기의 조상인 오이랴트과의 문화적 근접성을 말해준다<sup>42)</sup>.

바르구진 부랴트의 기혼녀와 미혼녀는 복식의 차이를 두어 구분하였다. 기혼녀는 포위에 허리띠를 두를 수 없었다. 다만 포위에 배자를 입었다. 기혼녀들은 배자와 관모 없이 남자들의 눈이나 특히 시아버지의 눈에 띄일 수 없었다.



<그림 25> 남자 델 (Mongol Costume)

미혼녀의 복식은 남성의 복식과 똑같다. 몽골의 남성 겉옷으로 델(deel, дээл)이라는 포를 착용한다. 우임의 포로 왼쪽 셔플 오른쪽 소매 가까이에서 단추로 여민다. 허리띠를 길이가 7-8m의 길이에 긴 것도 있어서 포위에 여러 번 감아서 둘렀다 <그림 25>.

남녀의 속옷은 짧은 셔츠와 바지로 구성되어져있다. 셔츠는 높지 않는 칼라가 있으며 오른쪽 소매 밑에서 단추로 여민다. 깃과 소매 끝은 다른 천으로 만들기도 한다. 셔츠는 바지 위에 입었다. 신발은 고틀(gotl, гутул)을 신었다.

몽골풍습 큰 사전에는 신랑과 신부의 전통혼례복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신랑의 전통 혼례복식

- a) 델(deel, дээл)-가슴의 끝 태두리를 여러 번 꿰매고, 소매가 손을 가릴 수도 있고 안 가릴 수도 있고 여러 재단의 deel을 입었다.
- b) 한타즈(hantaaz, хангааз-조끼)-칼라(collar)가 높고 앞가슴이 있는 조끼.
- c) 모자-дээл(deel)를 입으면 бүрх(burh) 모자를 써도 된다.

신부의 전통혼례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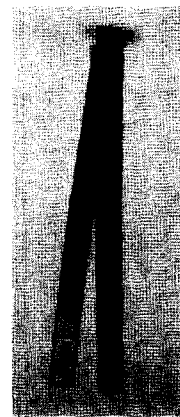
- a) 오즈(ooj, ууж)-앞가슴이 없고 앞이 열린, 호르고이 토보그(horgoi tovog, хоргой товогтой)가 있는 여러 가지 색깔의 비단으로 만든 조끼는 오즈(ooj, ууж)다.
- b) 델(deel, дээл)-일반 비단으로 만든 델(deel, дээл)이어도 좋고 독특한 재단으로 만든 드레스이어도 좋다. 신부의 델(deel, дээл)은 흑(黑), 황(黃), 청(靑), 홍(紅), 백갈색(白褐色)의 재단이면 좋다.
- c) 머리의 장식-결혼의 국가의식을 진행할 때 처음에 쓰는 홍색(紅色) 비단의 머리수건 등이 있다<sup>43)</sup>.

3. 한국 민족의 혼례복

한국민족의 전통혼례복은 특히 社會, 風土的 要因과 政治·宗教的 要因의 영향을 받으며 발달하였다. 조선시대의 혼례복은 왕족의 혼례와 평서민의 혼례에 다르게 착용되었다. 왕과 왕세자는 冕服을 입고 대군과 부마는 적자색 단령에 품계에 맞는 服背와 角帶를 하였다. 왕비와 세자빈은 翟衣를 입었고, 공주, 응주는 활옷이나 원삼을 品階에 맞게 흥배나 수식이나 보를 달아 입었다<sup>44)</sup>. 평서민은 혼례복으로 남자는 북청색 관복을 입고, 각띠를 띠고 목화를 신고 여자는 활옷이나 원삼을 입고 족두리나 화관을 쓰고 땡기를 매었다.

조선 시대 미혼녀는 머리를 한 갈래로 땅아 내려 머리끝에 땡기를 드렸다. 미혼녀가 드린 땡기는 제비부리 땡기로 홍색 천으로 만들었다. 그 크기는 연령에 따라 달랐으며, 땡기에 화려한 금박을 하였다. 때로는 땡기 고에 옥편이나 옥 나비 또는 칠보 나비를 붙이기도 하였다<그림 26>.

한국민족의 여성의 傳統修髮樣式은 나이와 사회적 신분과 가정에서의 위치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었다. 한국 민족의 기혼녀는



<그림 26> 땡기 (운양박물관)

혼인과 동시에 늘어뜨리던 머리를 모두 정리하여 없거나 정수리나 머리 뒤통수에 쪽을 틀었다.

조선시대에 기혼여성들에게 加髷가 널리 사용되었다. 조선 중기 기혼녀의 엮은머리가 유행하여 加髷가 성행하였고 加髷를 사용하여 '대수', '엮은머리', '어여머리' 등 다양한 형태의 修髮樣式을 하였다. 상류계급에서는 떨잠을 '대수', '엮은머리', '어여머리'의 좌우 양쪽에 꽂아서 修髮을 장식하였다. 修飾은 密花石黃과 金玉珠貝 및 칠보가 있었다<sup>45)</sup>.

조선중기 영조시대부터 加髷를 法으로 금하여 순조 중기 다래가 없어지고 후두부에 머리파래를 지어 비녀로 고정하는 '쪽'이라는 修髮樣式이 발달하게 되었다. 쪽진 머리가 일반화되며 비녀가 발달하게 되었다. 상류층은 金銀珠玉으로 된 비녀를 착용하였고 서민층은 木骨이나 角으로 된 비녀를 착용하였다. 蠶頭(비녀머리)는 신분의 고하에 따라서 엄격히 구별되어 착용되었다. 머리핀과 같이 생긴 보조 비녀로 加髷나 修式을 고정시켰다. 이들은 대개 銀제로 만들어졌다. 쪽머리가 유행하면서 첩지 장식도 유행하게 되었다.

민간의 혼례에서는 어여머리를 큰 머리라고 하였는데 솜족두리를 쓰고 머리를 엮고 옥판과 화잡으로 장식하였다. 쪽 머리는 뒤통수에 머리타래를 틀고 비녀로 고정시키는 머리인데 머리위로 화관이나 족두리를 써서 혼인예복차림을 하였다<그림 27-30>.

혼례예복에는 큰 땡기로 머리를 장식하였다. 큰 땡기는 검은 자주의 비단이나 검은 사 안에 붉은 사를 심으로 대어서 검붉은 빛이 돌게 하였다. 큰 땡기의 나비는 10cm 정도의 두 줄의 땡기를 연결하였다. 일반적으로 뒤텡기의 총 나비는 20~50cm이며 길이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엉덩이 길이에서 치마단까지의 길이가 일반적이다. 중앙에 석옹황이나 옥판을 달고 밑에도 석옹황 또는 밀화, 금패(錦貝)의 매미5마리 정도를 달아 두 갈라진 땡기를 연결하였다<sup>46)</sup>. 이러한 땡기를 도투락땡기라고도 한다. 도투락땡기는 금박으로 장식하고 호박이나 산호를 달았다. 서북 지방에서는 혼례 때 이와 비슷한 고이땡기를 썼다. 고이땡기는 검정색 천에 꽃과 여러 모양을 수놓았으며 진주로 장식하였다. 고이땡기는 검정색 천에 꽃과 여러 모양의 심벌을 수놓았으며 진주로 장식하였다. 혼인 예복에는 큰 땡기와 함께 앞 땡기를 비녀에 말아 어깨 위로 내려뜨렸다<그림 31-32>. 신부는 몽두라는 면박을 하였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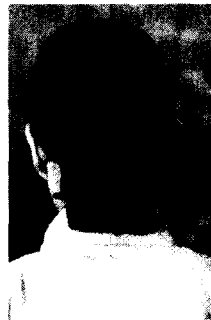
<그림 27> 대수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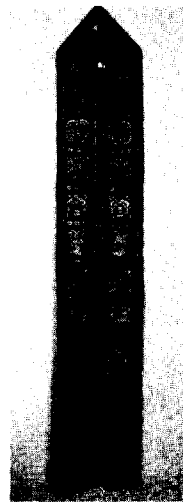
<그림 28> 어여머리  
(한국의 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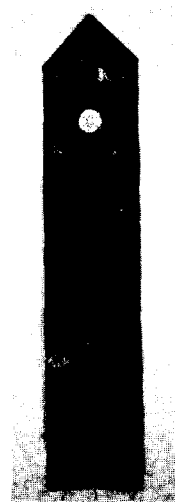
<그림 29> 떠구지머리  
(한국의 복식)



<그림 30> 쪽 (Korea)



<그림 31> 뒤텡기  
(조선시대의 관모)



<그림 32>  
도투락땡기  
(조선시대의 관모)

‘이재의 사례편람’에는 신랑·신부가 맞절할 때 신랑은 신부를 위하여 몽두를 벗겨준다고 하여 민간에서도 혼례에 면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爲婦擧蒙頭揖婦就席婦拜...)47). 기혼녀의 머리장식은 미혼녀의 머리장식보다 발달하여 화려한 장신구를 착용하였다. 한국민족의 修髮樣式은 절제미와 자연미가 조화된 균형미가 뛰어나 세련미가 발달되었다48).

신부는 초례에 염의와 대를 착용하였고 현구고례에는 화관에 수의를 입는다고 하였다49). 그러나 조선말에는 ‘현토주해 사례편람(1924)’에 염의는 활옷이며, 신랑 신부가 맞절 할 때와 시부모 뵈 때에 입는 것’이고, 우귀에 신부집에서는 단위와 면사포를 갖추었다고 하였는데 단의는 현재의 원삼을 말한다 한다.

혼례 시에는 신부는 삼작 저고리를 착용하였다. 먼저 모시속적삼을 입고 그 위에 매듭단추를 단 속저고리를 입은 후 곁에 삼회장 걸저고리를 입었는데 이를 저고리 삼작이라 한다. 첫날밤에 시원하게 잘 지내면 앞으로 남편이 속을 썩여도 속 꿍이지 않고 속 시원히 살 수 있다고 해서 겨울에도 분홍 모시적삼을 입었다고 한다50).

걸저고리는 여름이라도 솜을 두는데 동정 밑으로 짓고대에 솜을 약간만 넣었다. 짓고대에 솜을 두는 것은 시집살이가 되니까 모든 것을 덮어 가지고 잘 살라는 뜻과 솜처럼 살림이 잘 일어나라는 뜻도 있다고 한다51).

혼례 시에는 노랑이나 초록삼회장 저고리를 입고 곁은 홍색치마, 안은 남색치마를 입었다. 이 겹치마는 앞이 징거져서 틀리어 남색겉치마가 약간 나오게 입었다. 노랑저고리는 흙을 상징하여 만물을 생성한다는 뜻이고 홍치마는 자손과 가운이 불과 같이 왕성하라는 뜻이 담겨있다52). 겉치마 안에는 다리속곳, 속속곳, 바지, 너른바지, 단속곳을 입고 ‘현토주해 사례편람’에는 무지기를 다홍치마 안에 끼 입었다고 기록되었다.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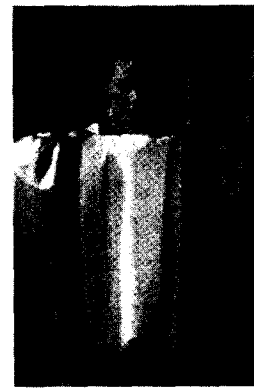
원삼은 조선후기에 가장 일반적으로 착용된 혼례복으로 大衣라고 하며 상례 시에는 수의로 입었다. 원삼은 조선의 왕비와 궁중의 내외명부들의 대례복으로 입혀졌다. 평서민은 혼례 시에만 초록원삼을 입을 수 있었다. 혼례용 초록원삼은 궁중원삼보다

치수가 조금작고 소매의 색동이 넓고 남·황·분홍·옥색·홍색 색동을 달았고 화문과 동자, 석류, 쌍학등의 길상문을 화려하게 금박 하거나, 금직하였다<그림 33>.

활옷은 홍장삼이라고도 불렸으며 붉은 공단에 화려하게 수를 놓은 것으로 혼례 시나 우귀 시에 착용되었다. 형태는 원삼과 비슷하나 것이 다르고 색상이 다르다. 동양의 음양사상에서 남자는 남색 여자는 홍색으로 정한 것을 바탕으로 남색으로 안을 받치고 곁감은 홍색으로 배치함으로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였으며, 길상 무늬로는 연화, 모란, 십장생 등을 수놓아 장수와 길복을 기원하였다. 二姓之合 百福之源, 壽如山的, 富如海 문자를 수놓았다 <그림 34>.

원삼과 활옷에는 조선의 삼강오륜정신을 염원으로 담고 있다. 음양의 조화를 이룬 홍색과 청색의 대비는 부부유별의 정신을 나타내고, 등술을 가르지 않은 것은 일부중사의 염원이 깃들여 있으며 등자문은 다산을 기원하며 가계존속을 상징하고 있다.

원삼을 착용 시에는 족두리를 머리에 쓰고 활옷을 착용할 때는 화관을 수식으로 사용하였다. 족두리는 검은 비단으로 만들고 아래는 둥글고 위는 육모로 되어있다. 조선후기 영·정조시대에는 사치스런 엷은머리 금지령을 내려 족두리가 널리 보급되었다. 장식이 없는 민족두리, 패물로 꾸민 장식 족두리가 있다<그림 35-36>. 화관도 영조의 가채금지령에 의해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화관의 장식도 점점 화려해지게 되었다. 궁중의 경사나 양반가의 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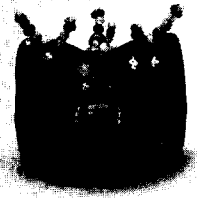


<그림 33> 원삼과 족두리  
(Korean cultural heri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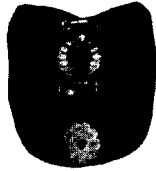


<그림 34> 활옷 (조선왕조  
500년복식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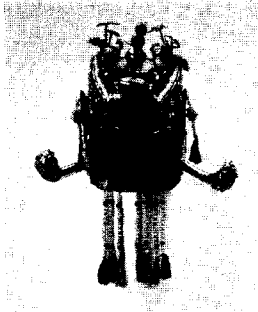
례 때 사용한 수식이다. 혼례용 화관은 종이나 비단으로 관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패물을 장식하고 작은 비녀2개로 고정시켰다<그림 3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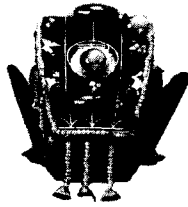
<그림 35> 족두리  
(조선시대의 관모)



<그림 36> 족두리  
(조선시대의 관모)



<그림 37> 화관  
(조선시대의 관모)



<그림 38> 화관  
(조선시대의 관모)



<그림 39> 신랑의 사모, 관대와 단령

한국민족의 19세기~20세기 초 신랑의 전통혼례복식은 사모, 단령, 혁대와 목화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조선 초기에는 유관자만이 사모와 품대를 하고 직함이 없는 자는 입을 착용하고 條帶를 띠었다고 한다<sup>54)</sup><그림 39>. 초행에서 신랑은 성장을 하고 오기도 하였고 평복에 주의를 입고 와서 사모관대로 갈아입기도 하였다. 혼례가 끝나면 신랑과 신부가 각기 방에 들어가 '관대벗김'을 하였는데 사모관대를 벗기

고 복건에 초립을 씌우고 청도포를 입히는 등, 신부 집에서 만든 옷을 갈아 입혔다고 한다<sup>55)</sup>.

단령이란 등근것을 뜻으로 통일신라의 唐服 채용 후 百官公服으로 채용되어 당나라의 제도를 따르게 된 후부터 조선시대에는 문무백관의 공복과 상복으로 착용되었다. 단령의 옷깃이 등글게 깊어지고 홀옷에 중단을 받쳐입던 것이 점차 겹옷이 되었다. 따라서 안감깃은 직령이고 겹감 깃은 단령이다. 앞은 우임으로 등근 깃의 끝은 매듭단추로 어깨에 고정시킨다. 혼례복으로는 일반적으로 監色 관복을 입고 각대를 띠고 집안 벼슬과 품계에 따라 흉배를 달았는데 서민들도 당상관과 같은 쌍학의 흉배를 달았다. 사모는 고려말 우왕 이후부터 백관이 상복에 착용하였던 관모로서 복두에서 변천된 것으로 신랑예복에 착용이 허용되었다. 사모는 竹絲와 말총으로 잔 帽體를 만들고 검고 고운 비단으로 씌웠다. 개화기 사진에는 풍차 등의 방한모나 복건 위에 사모를 착용한 경우를 볼 수 있다<그림 40>.



<그림 40> 신랑과 신부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혼례용 목화는 백관 상복에 사용된 것으로, 목이 길고 길은 검정색 우단이며 안은 용을 대고 밑창은 가죽인데 솔기에는 붉은 선을 둘렀다. 직품을 나타내는 대인 품대를 혼례에 사용하였다. 이 품대는 재료에 따라 직품을 나타내는데 혼례 시 일품과 같은 屨대를 띠었다.

내의로는 적삼과 고의를 입었는데 혼례시에는 겨울철에도 속적삼을 모시로 지었는데 한평생 시원하게 살라는 뜻으로 입혀졌다고 한다. 그 위에 바지와 저고리를 평상복과 같이 착용하였다.



#### IV. 고찰 및 결론

동 슬라브(러시아, 백러시아, 우크라이나)민족과 몽골(외몽골)민족과 한국민족의 전통 혼례절차 및 전통 혼례복을 고찰한 결과 위 세 민족간의 전통 혼례관에 나타난 가치관의 고유성과 유사성을 아래와 같은 규명할 수 있었다.

첫째, 동 슬라브 민족, 몽골민족 및 한국민족의 혼례절차를 살펴보면 세 민족 모두 婚禮前, 婚禮式 그리고 婚禮後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혼례 의례의 절차는 혼례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혼례전 기간은 중매자에 의하여 혼인 의례의 준비기간이고 혼례의식은 신랑, 신부의 개인의 화합을 상징하고 있으며 혼례 후 의식은 세 민족 모두 신부가 신랑의 가정에 화합함을 뜻하는 의식을 하였다. 특히, 동 슬라브 민족과 몽골 민족과 한국민족 즉,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세 민족간의 혼례 정신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음이 고찰되었다. 위 세 민족은 가부장 제도의 가정에서 수행되는 여성 역할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혼례의 많은 상징적 부분들이 한 여성이 남성의 가정에 귀속되어 가정 경제와 가계존속의 의무를 수행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 슬라브 민족의 혼례식에서의 '변발 팔기'나 '관모 바꾸기'는 신부가 신랑에게 귀속되고 복종할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를 통해, 동 슬라브 민족의 가족구조가 가부장적인 것임을 보여 준다. 몽골민족의 약탈혼 관습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와 혼례 3일 후 신부의 아버지가 잔치에 참여해서 혼인을 인정하는 절차에 남아서 혼례의례 절차를 형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약탈혼의 특징은 신부는 신랑의 가정에 속하여 가계를 섬겨야 하는 가부장적인 가계질서를 요구한다. 한국민족은 유교적 전통으로 인한 삼강오륜에 기초한 가부장제도가 혼례의식과 혼례복에 표현되고 있다.

둘째, 동 슬라브 민족과 몽골 민족과 한국민족의 혼례복에서 관모의 역할은 지대하였다. 관모와 수발양식은 구성원의 사회적, 신분적 표지를 하는 目的衣服이라고 연구자는 命名하고 싶다. 세 민족 공히 수발양식은 미혼녀와 기혼녀를 표시하고 있

며 관모도 이를 표시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신분의 고하를 다른 의복보다 더 명확히 밝혀주고 있다. 동 슬라브 민족, 몽골민족 및 한국민족의 신부는 혼례식에 관모나 수발양식을 바꾸는 절차를 수행하였다. 혼례복식에서의 수발양식과 관모는 혼례여부의 표시 기능을 하였다. 동 슬라브 기혼녀의 수발형태는 머리를 올리고 관모를 써서 두발을 감추었다. 동 슬라브 기혼여성의 관모와 수발양식은 남편에 대한 복종과 남편의 가정에 복속된 것을 의미하였다. 몽골의 기혼여성은 머리를 양 갈래로 땅아 내렸으며, 한국의 기혼여성은 머리를 쪽을 지었다. 동 슬라브 민족, 몽골민족 및 한국민족의 신부는 혼례 시 모두 얼굴이나 몸 전체를 가리는 천을 둘러썼다. 동 슬라브 민족의 빠끄리발라, 몽골 민족은 빨강, 녹색, 흰색의 천으로 덮었고 한국민족은 몽수로 면박을 하였다.

셋째, 혼례는 人倫之大事를 치르는 의식에 걸맞게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복식과 관모를 착용하였다. 동 슬라브 민족의 혼례복식은 루바하(rubaha, рубaha)와 바지, 루바하(rubaha, рубаха)와 사라판(sarafan, сарафан)이나 치마와 관모로 이루어 졌다. 혼례용 루바하(rubaha, рубаха)는 평상복보다 많은 장식을 하였고 사라판(sarafan, сарафан)이나 치마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관모는 러시아에서는 진주나 보석으로 장식하였고 백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생화와 조화 새의 깃털로 장식하였다. 신랑의 혼례복으로 새 루바하(rubaha, рубаха), 바지를 준비하였고 신랑은 신부의 혼인 예복을 선물하기도 하였다.

한국민족의 혼례복은 신부는 삼작저고리를 입고 궁중 복식인 원삼이나 환옷이나 형편에 맞게 당의도 착용하였다. 겨울에도 모시 적삼을 착용하여 신부가 일평생 어려운 시집살이 가운데서도 시원하게 살라는 기원을 담고 있다. 신랑은 평서민도 백관의 복식인 사모 관대와 관복 착용이 허용되었다. 몽골민족의 신랑의 전통혼례복식은 델(deel, дээл-포), 한타즈(hantaaz, хантааз-조끼), 말괘(malgae, малгай-모자)이며 신부의 전통혼례복식은 오즈(ooj, ууж-배자), 델(deel, дээл-포), 톨고이 뿔트(toigoj polt, толгой боолт-머리장식)이다. 여성의 델(deel, дээл

-포)에서 기혼녀는 허리띠를 금하였으나 현재에는 허리띠를 띤다.

넷째, 혼례복은 대부분의 복식이 상징성을 가지고 착용되었다. 동 슬라브 민족은 기독교와 샤머니즘이 혼합된 형식으로 행복과 부를 빌고 또한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러운 옷이나 상복이나 그물 등과 같은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혼례의 절차에 따라 다양한 혼례복을 착용하여 악한 영을 속여 무사히 혼례가 치러지기를 기원하였다. 몽골 민족은 모든 혼례절차마다 샤머니즘적 길흉화복사상을 가지고 택일하여 의례를 행하며 길일에 맞추어 신부의 쓰개색깔을 결정하였다. 한국민족은 오행사상과 삼강오륜을 기초로 한 정신을 가지고 혼례복 색상을 음양의 색 조화를 이루어 부부유별을 상징하고, 혼례상의 기러기와 혼례복의 구조적 상징성에서 일부중사를 의미하고 활옷의 동자문양은 다산을 상징하며 가계존속을 상징하였다. 이외에 십장생을 혼례복에 수놓아 장수를 기원하였다.

동 슬라브 민족, 몽골 민족 및 한국민족의 혼례복식은 각 민족 고유의 미적 감성에 따라 상이한 조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혼례절차와 이에 따른 수발양식의 변화는 혼례복에 나타난 가부장제도라는 가치체계의 상징성을 공통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정교회, 샤머니즘 및 유교의 다른 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질서의 확립, 가계존속과 경제적, 사회적 기반의 형성이 위세 민족의 공통된 혼례 목적임을 알 수 있었다. 세 민족의 혼례절차와 혼례복에 나타난 공통점은 유라시아의 고대 문명과 문화의 공유로 인한 세 민족간의 보편 타당한 가치관의 존속과 문화접변에 따른 상호 영향의 결과로 보여진다.

## 참고문헌

- 1) 최수빈, 조우현, 東슬라브민족의 女性 頭飾에 관한 研究 -未婚女, 既婚女 中心으로- 복식, 50, 한국 복식학회, 2000. 1. pp. 113-129.
- 2) Цой Су-Бин, Головные уборы восточных славян, монгол оязычных народов и корейцев: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и взаимовлияние, Минск, 1999. thesis, (Choi Su-Bin, Headgears of eastern slavics, mongolians and koreans: mutual interactions and influences, Minsk, 1999)
- 3) Русские, Москва, Наука, 1999, p.466
- 4) Макашина Т.С., Свадебный обряд//Русские, Москва 1999, p.466. (Makashna T.S., Weeding custom//Russian, Moscow)
- 5) 최수빈, 조우현, 19세기~20세기 초 동 슬라브 민족 전통혼례복의 고찰, 한국의류학회지: 제 25권 2호 2001, p. 275
- 6) Буслаев Ф. И. Исторические очерки русской народной словесности и искусства, СПб., 1881, т.1, p. 46-47. (Buslaef F.I., A Historical Introduction to russian folk Literature and Arts, San-Petersburg)
- 7) Власова И.В., Брак и семья у русских (XII-началоXXв ека)//Русские, Москва, 1999, p.417.(Vlasova I.V., Marriage & Family of Russian(12-early20C.))//Russian, Moscow, 1999)
- 8) Ibid p.418.
- 9) Лебедева А.А., Семья и семейный быт русских //Быт и искусство рус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Новосибирск, 1975. ч. II, p. 96. (Lebejeva A.A., Family & Russian Family's Custom//Custom & Art of Russian residents of East Siberia, Novosibirsk, 1975)
- 10) 최수빈, 박찬부, 東슬라브, 蒙古, 韓國人의 頭飾의 比較 研究 -未婚女, 既婚女 中心으로-인하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논문집 제 5권 1998. 12. pp. 65-66.
- 11) 최수빈, 조우현, 東슬라브민족의 女性 頭飾에 관한 研究 -未婚女, 既婚女 中心으로- 복식, 50, 한국 복식학회, 2000. 1. p. 118.
- 12) 최수빈, 조우현, 19세기~20세기 초 동 슬라브 민족 전통혼례복의 고찰, 한국의류학회지: 제 25권 2호 2001, pp. 275-277에서 동슬라브 혼속에 관한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3) Т-в азийн нүүдэллүдийн соёл Иртэншилйн зарим асуур ал, 1997, pp. 140-147-제8장의 13조에서 귀족이 평민의 결혼한 여성을 타인에게 주게 되면 원래의 남편에게 다시 주어야 한다. 주지 않을 때 100마리의 가축을 주어야한다. 제8장 212조에는 '귀족의 자식을 결혼시키고, 다른 귀족의 아들에게 주었으면, 그때의 혼수품으로 말, 양, 낙타, 소, 염소 등으로 구성된 55마리의 가축으로 벌을 준다. 결혼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다시 돌려준다' 라는 지시하고 있다
- 14) Сычев Д.В., Из ичтории калмыцкого костюма, Элиста, 1973, p. 57
- 15) Ц.Аюуш, <Монголчуудын уламжлалт хуримын зан үйллийн өөрчлөлт, шинэчлэл>«Этнографийн судлал»9, 1982, p.61
- 16) Ц.Аюуш, <Монголчуудын уламжлалт хуримын зан үйллийн өөрчлөлт, шинэчлэл>«Этнографийн судлал»9, 1982.

- p.63
- 17) 몽골 유목 문화, 경기도 박물관, 1999, p.68
  - 18)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려원, 1988, p.45
  - 19) 이순홍, 韓國傳統 婚姻考, 학연사, 1992, p.403 (한국과 일본의 혼인풍속과 혼인복식에 관한 비교연구-17~19C 중엽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논문, 崔仙銀, p. 18 재인용)
  - 20)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 pp.51-65
  - 21) 이재, 四禮便覽, 二七
  - 22) Маслова Г.С., Народная одежда в восточнославянских традиционных обычаях и обрядах XIX-началаXXв., М., 1984, p.47. (Maslova G.S., National Costume for Traditional Custom of East-Slav in XIX - the Early XX, Moscow)
  - 23) 스카프형 관모
  - 24) Запольский М.П., Белорусская свадьба в культурно-религиозных пережитках//ЭО., 1893, 1-2, p.58
  - 25) Прыткова Н.Ф., Одежда ижор и води //Западнофинский сборник, -Тр. КИЭС, 1930, и. 16, p.327 (Prytkova N.F., Dress of Izor and Vodi// Western Finnish collection)
  - 26) Шейн П.В., Материалы для изучения быта и языка рус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еверо-Западного края, СПб., 1980, т.1, ч.II p.379. (Shein P.V., Material for Study to Custom & Language of Russian in North-West Border, San-Petersburg)
  - 27) Запольский М.П., Белорусская свадьба в культурно-религиозных пережитках//ЭО, 1893, 1-2, p.43. (Japolsky M.P., Belarusian wedding ceremony in culture-religion heritage)
  - 28) Никольский Н.М., Происхождение и история белорусской свадебной обрядности, Мн., 1956, p. 115. (Nicolcky N.M., The origin & history of belarusian wedding customs, Minsk)
  - 29) 수건형 관모나 빨라톡 (платок)
  - 30) Зеленин Д.К., Женские головные уборы восточных(русских) славян// Slavia, 1926, вып. 2, pp. 315-317. (Jelenin D.K., Women's headgears of east slav)
  - 31) Гаген-Торн Н.И., Маг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волос и головного убора в свадебных обрядах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ы//СЭ, 1933, 5-6, p.88. (Gagen-Torn N.I., Meaning of socery in hear & headgear for wedding custom of east slav)
  - 32) Г.С.Маслова, Народная одежда в восточнославянских традиционных обычаях и обрядах XIX начала XXв., p.41
  - 33) Мерцалова М.Н., Поэзия народного костюма М., 1975, p. 35. (Merchaloba M.N., Poem of race costume, Moscow)
  - 34) 최수빈, 조우현, 몽골·韓國民族의 女性 修髮樣式 比較, 몽골학 제9호, 2000, 9, pp.85-86
  - 35) 데 바이에르(저), 박원길(역), 몽골석인상의 연구, 1994, 해안, pp. 57-58
  - 36) Монгол Ёс Заншлын их тайлбар толь, "Сүүлэнхуу" хүүхдий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1992, p.391-392(몽골풍습의 큰 사전)
  - 37) 札奇斯欽(Jagchid-Sechin), 蒙古的婚禮, pp.109-121
  - 38) 藤井麻湖, 초원의 혼례, 몽골 유목문화, 경기도 박물관, p.66
  - 39) П.2. 몽골 민족의 전통 혼례 참조
  - 40) Вяткина К.В., Монголы монголь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М-л, 1960, P.189 (Vyatkina K.V., Mongolians of Mongolian People's Republic, Moscow-Leningrad)
  - 41) Вяткина К.В., Монголы монголь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М-л, 1960, P.191 (Vyatkina K.V., Mongolians of Mongolian People's Republic, Moscow-Leningrad)
  - 42) Кочешков Н.В., Декоративное искусство монголоязычных народов XIX-серединыXX века, М., 1979, p.138 (Kocheshkov N.V., Decorative arts of mongolian peoples 19-middle20C., Moscow)
  - 43) Монгол Ёс Заншлын их тайлбар толь, "Сүүлэнхуу" хүүхдийн хэвлэлийн газар, 1992, p.376(몽골풍습의 큰 사전)
  - 44) 崔仙銀, 한국과 일본의 혼인풍속과 혼례복식에 관한 비교연구 -17~19C 중엽을 중심으로-, 성균관 대학교 의상학과 석사논문, 1994, p.31
  - 45) 백영자, 한국의 복식, 경춘사, 1996, p.293
  - 46) 유희경, 한국 복식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989, p.417
  - 47) 李緯, 四禮便覽 卷二 婚禮 二七
  - 48) 유희경, 한국 복식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5, pp. 417-420.
  - 49) 이은주, 전통의례복식의 변천, 한국복식2천년, 국립민속박물관, 1995, p.234
  - 50) 조우현, 한국 속옷, 세계 속옷 역사전, 2000, p.36.
  - 51) 홍나영, 혼례복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p. 7
  - 52) 백영자, p.384
  - 53) 홍나영, 혼례복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p. 6
  - 54) 『經國大典』, 卷二, 禮典 朝儀 (홍나영, 혼례복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서 재인용)
  - 55) 문옥표외, 조선시대 관혼상제(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p.176